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1월 10일(일) 제1515호



사진은 양재온누리교회 유년2부 김기덕 교사와 아이들.

차세대 교사 모집



사랑부 교사 모집



“다음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2025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 교사 390명, 사랑부 교사 30명 필요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육할 '2025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11월 9일(토)부터 17일(일)까지 모집한다. 현재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섬기는 교사는 2,922명이다. 교사 390명, 사랑부 교사 30명이 더 필요하다(관련 기사 7면).

2025년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추천을 요청한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또는 상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을 품은 성도로,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세례교인, 공동체 순예배 참석 중인 성도여야 한다.

2025 차세대 교사 모집 기간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차세대 교사들의 간증과 특순이 이어진다. 11월 10일 서빙고 일요주일 2~4부 예배와 SNS청년부 1~2부, 하늘대학부 예배, 양재 일요주일 2~4부 예배와 J4U청년부, 허브대학부, 여호수아청년부 예배, 도곡 일요주일 1~2부 예배와 갈렙청년부 예배에서 특순한다.

차세대 교사 간증은 11월 9일과 10일 서빙고, 양재, 도곡 성인예배와 대학청년부예배(SNS청년부, 여호수아청년부, J4U청년부, 갈렙청년부, 하늘대학부, 허브대학부)에서 한다. 다른 캠퍼스에서는 상황에 맞춰 진행한다.

김기덕 교사(양재 유년2부)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다음세대가 부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잘 키워나가기를 소망한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차세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할 멋진 선생님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12면).

2025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

사사명교육'도 한다. 목요반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반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한다. 신입 차세대 교사들은 11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교사 부흥집회'에도 꼭 참석해야 한다. 사랑부 교사 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실시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사랑부 02-570-734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4 엔젤트리 사연 모집

11월 22일까지 홈페이지 및 목회행정실

'2024 엔젤트리' 사연을 11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지 둘러보고, 연역한 이웃을 위한 사연을 신청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신청서에 넣고 싶은 이웃의 정확한 주소와 사연, 전하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4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3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모든 사연이 연결 될 때까지 게시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를 제외한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매해 겨울 엔젤트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수험생을 위한 '수능당일기도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수험생을 위한 '수능당일기도회'를 개최한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4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진다. 수험생들과 동일한 일정으로 기도회를 한다.

수능당일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 노치형 목사가 설교하고, 차세대사역본부 소속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인도한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도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화재 대피 소방 훈련 실시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10시 40분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센터

온누리교회 안전위원회에서 11월 17일(주일) '화재 대피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화재 경보가 울리면 침착하게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1층 잔디광장으로 대피하면 된다. 옥내소화전 방수 훈련 및 CPR 교육도 이뤄진다.

당회

일시: 2024년 11월 16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안건: 2025년 장로선출투표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던 그리스도의 증인 여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유대와 로마 권력의 한복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한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

첫째, 바울이 억울한 재판을 받는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 권력 기구인 산헤드린이 로마 법정에 고소한 죄수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압박이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법 앞에서나 양심 앞에서 죄가 될 만한 일이 절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재판 과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11절a).

“만일 죄가 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바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설사 억울하게 죽음이 내려지더라도 달게 받고자 하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권력자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됩니다. 비록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달게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앞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 뜻대로 부름을 받은 여정을 견고 있었기에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일본 러브소나타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故 하용조 목사님이 치료 때문에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故 하용조 목사님에게는 단지 치료가 아니라,

생명 연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브소나타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믿음은 치료 받고 있는 환자가 할 생각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했던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러브소나타 사역이 일본열도를 깨우는 귀한 통로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센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거센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고위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기회를 얻게 된 이유는 유대 산헤드린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 지도자들의 끈질긴 고소와 압력이 없었다면 로마 총독들이 바울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바울을 재판했던 벨릭스 총독은 그의 무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감옥에 두었습니다. 바울을 풀어 주면 유대인들을 자극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년 뒤 총독으로 임명된 베스도 총독도 부임하자마자 다가온 가장 골치 아픈 과제가 바울이라는 죄수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부터 방문합니다.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권력 기구인 산헤드린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독이 그들과 불편한 관계라면 유대를 통치하는 일이 악몽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임 인사를 하러 온 베스도에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2년 전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와 끈질기고 거센 고소와 압력이 도리어 바울을 영향력 있는 증인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는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증거의 내용을 보면 총독들이 이해하기 힘든 종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알고도 풀어 주지 않은 이

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 준 정치가의 비겁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겁한 권력자들에 의해 바울이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고 2년 동안 있었고, 베스도 총독에게도 얹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더 많은 권력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고하게 가해지는 공격이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게 하고자 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바다에는 수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철판으로 만든 잠수함도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유유히 다닙니다. 수압이 물고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그 엄청난 수압을 이기는 것입니다. 수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압이 있어도 그것을 상쇄시키는 신비한 생명의 힘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압력과 힘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세상의 압력을 상쇄시키는 내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셋째, 증인의 사명은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활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11절).

‘가이사’는 영어로 ‘Caesar(시저)’입니다. 시저는 이름이 아니라 ‘황제’ 혹은 ‘대통령’ 같은 직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저는 네로였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의 법적 문제를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는 이 한마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죽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기회라면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 총독이 관할하는 사법권을 벗어나 로마에 있는 황제의 최고 법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배심원들과 상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상소했을 때 배심원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무죄함을 증명하고, 호소하고, 풀려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한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는 말 한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관점에서 볼 때 “가이사에게까지 나는 증인이 되리라”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에 있는, 로마법에 구속되어 있는 바울에게 최후의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를 역설적으로 죄수이기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수이기에 만날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가이사를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게 고소당해서 총독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죄수였기에 가이사를 만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당시 최고 권력자 가이사까지 만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해석의 관

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총독이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상소문을 써야하는데 참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그립바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을 만나고

아그립바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립바 2세입니다.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헤롯 가문이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헤롯대왕은 형제가 여럿인데 가족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빌립 2세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분봉왕이고, 안티파스가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입니다. 이 세 사람이 통치를 했고, 빌립 1세가 통치자 역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통치자 역할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그립바 1세는 <사도행전>에서 아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그 왕입니다. 아그립바 2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립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잔인했고, 그의 할아버지 헤롯대왕도 가족들을 모두 숙청할 정도로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 명령했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가족도 죽인 사람이 누구를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죽이고 숙청하고 네 명 정도의 후손에게 지역을

물려줬습니다. 그의 증손자가 아그립바 2세입니다.

아그립바 2세가 통치하던 지역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지역과 오늘날은 다르지만, 그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었고, 대제사장 임명권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밝히 안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그립바 왕이 찾아와서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립바 2세가 심문해 보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서 베스도가 아그립바 2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19절).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는 게 문제가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가 보기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산헤드린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픈데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이제 훌가분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써야 하니까 상소문 쓰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그립바 2세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그립바 2세도 비록 잔인한 헤롯대왕의 후손이지만 그 시대 통치자로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공격이 더 심할수록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회, 모든 사람이 대상자

바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대상자였습니다. 죄수라는 신분이

도리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더 강한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있었기에 세상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자행됐을 때 인내와 용기와 기쁨으로 죽음을 달게 맞이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서머나 주교 폴리 카프 AD 155년 화형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힘들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는 기쁘게 화형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세상에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많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쁘게, 죽음을 달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죽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기회라면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죽음일지라도 달게 받으려는 증인의 담대함,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모든 위기 상황이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최후의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바울의 열정적인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온누리교회의 미래

온누리교회 성도 4,123명 설문 조사 참여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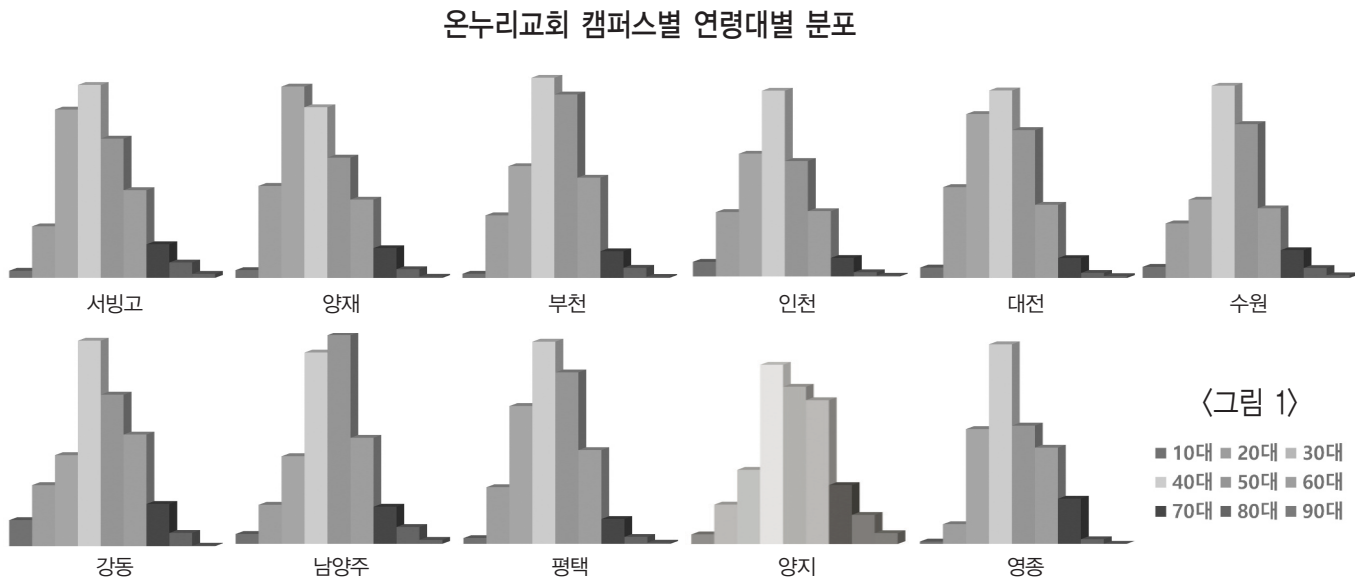
박태성 집사
(미래성장위원회,
서초A공동체)

2012년 이후 한국 기독교 성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보고서가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한국기독교분 석리포트와 한국갤 럽을 비롯한 주요 조 사 기관들이 특히 30~40대 젊은세대와 청소년 성도 수 감소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성도의 노령화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경고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올해 9월 10일 발표한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에서 2024년 현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828만 명(총 인구의 16.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4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560만 명(총 인구의 11.9%)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감소 속도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곧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온누리교회는 이러한 감소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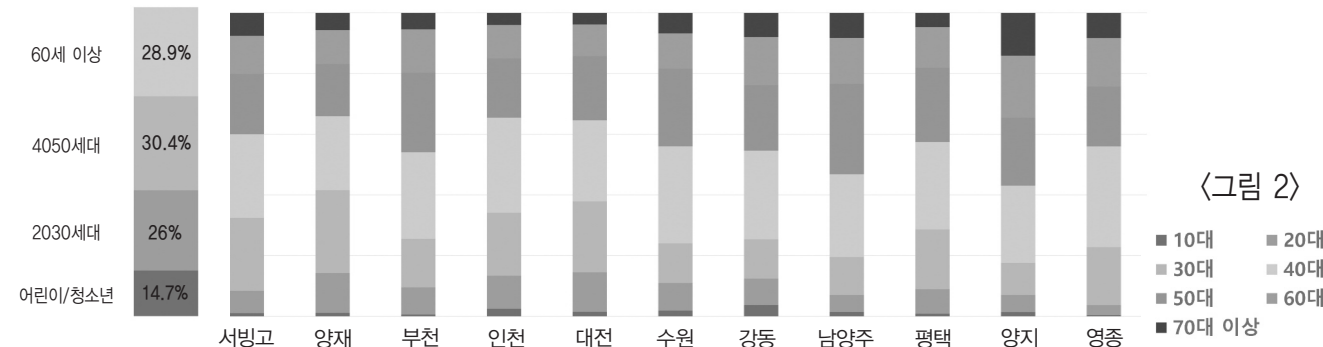
첫 번째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각 캠퍼스와 공동체별 등록 성도 데이터를 포함한 DB(DataBase) 자료다. 두 번째 자료는 온누리교회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구글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도들의 의견을 2024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수집했다. 설문은 기본적인 신앙생활 문항 외에도 성인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이 데이터들은 온누리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교회가 세대별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캠퍼스별 연령 분포 분석 결과

2024년 5월 기준, 온누리교회 전국 11개 캠퍼스에 등록된 5만 3천 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공동체별 순예배 참석 등 활발히 활동하는 인원들의 연령 분포를 분석했다. <그림 1>의 연령대별 분포는 10대부터 90대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 캠퍼스에서 40대 성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0대 막대의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집중된 경우(5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은 경우)와 왼쪽으로 집중된 경우(30대 이하 연령층이 많은 경우)로 나뉘어 캠퍼스마다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빙고, 양재, 대전 캠퍼스에서는 30대 교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 평택, 양지, 영종 캠퍼스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한국 기독교 교세 추계분석 온누리교회 캠퍼스별 연령대별 인원 분포와 한국 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 결과 비교



퍼스마다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빙고, 양재, 대전 캠퍼스에서는 30대 교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 평택, 양지, 영종 캠퍼스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와 비교

<그림 2>에서는 ‘한국 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의 데이터와 온누리교회 캠퍼스들의 연령대별 비율을 비교했다. 한국 기독교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030세대 이하의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반면, 온누리교회에서는 양재 캠퍼스만이 40%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캠퍼스들은 대부분 40%에 못 미쳤다. 특히 양지 캠퍼스는 18%, 남양주 캠퍼스는 20%로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한국 기독교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이 약 30%인 데 비해, 온누리교회의 캠퍼스들에서는 60세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재 캠퍼스가 34%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캠퍼스에서 25% 이하를 기록했으며, 특히 양재, 인천, 대전은 17% 이하로 나타났다. 중간 연령층인 4050 세대가 전체 성도의 약 45~55%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보였다. 이 같은 분포는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와 달리 성도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다소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어린이, 청소년 및 2030세대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캠퍼스별 연령대를 이차원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양재, 서빙고, 대전, 인천 캠퍼스가 비교적 젊은 그룹을 형성했으며, 양지와 영종 캠퍼스는 다소 고령층 비율이 높았다. 각 캠퍼스의 공동체 인원, 공동체 참여율, 순예배 참여율 등을 분석한 결과, 캠퍼스마다 순예배 인원과 참여율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를 비교해 보면 청년 공동체 인원은 많으나 순예배 참여율은 성인 공동체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두 캠퍼스의 청년부는 연령대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줬으나, 보다 활발한 청년층의 참여 유도 및 정착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령 분포는 온누리교회가 청년층 유입에 있어 한국 기독교계 평균보다는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노령화와 청년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층의 비율이 낮아 장기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온누리교회의 설문 조사에는 총 4,123명이 참여했으며, 성별 응답자 4,097명 중에서 남성 36.1%(1,478명), 여성 63.9%(2,619명)로 여성이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1,121명), 그 이후 40대(1,003명), 60대(6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율은 전 연령에서 약 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회 출석 연수를 묻는 질문에서 ‘2년 미만’과 ‘2~4년’이 각각 약 12%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5년 단위로 17~22%의 비율로 골고루 분포했다. 신앙생활 연수는 40년 이상 34%, 30~39년 24.3%, 20~29년 19.3%로 나타나 장기 성도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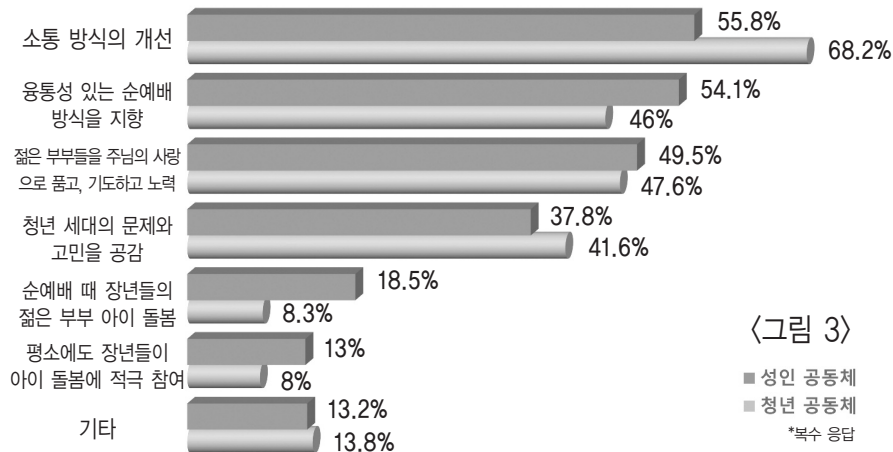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설문 조사 분석

온누리교회의 설문 조사에는 총 4,123명이 참여했으며, 성별 응답자 4,097명 중에서 남성 36.1%(1,478명), 여성 63.9%(2,619명)로 여성이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1,121명), 그 이후 40대(1,003명), 60대(6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율은 전 연령에서 약 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회 출석 연수를 묻는 질문에서 ‘2년 미만’과 ‘2~4년’이 각각 약 12%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5년 단위로 17~22%의 비율로 골고루 분포했다. 신앙생활 연수는 40년 이상 34%, 30~39년 24.3%, 20~29년 19.3%로 나타나 장기 성도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신앙 성숙도 분석

신앙의 성숙도를 1~4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응답자 41.1%가 3단계, 35.4%가 4단계로 고(高)신앙 단계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많고, 교회 출석 연수와 신앙생활 연수가 길수록 4단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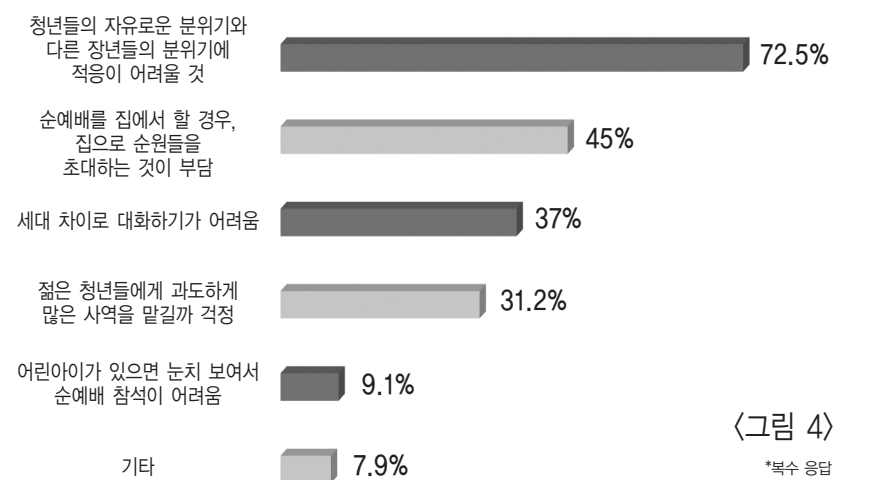
성인 공동체에서 청년 공동체의 젊은 부부 수용을 위해 노력할 점



〈그림 3〉

*복수 응답

청년 공동체에서 성인 공동체 참여시 예상되는 어려움



〈그림 4〉

*복수 응답

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高)신앙 단계에 많이 속해 있었다. 또한 부모님의 신앙 단계와 응답자의 신앙 단계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는 0 단계가 많았고(28.8%), 어머니는 4단계가 가장 많았다(33.1%). 응답자와 어머니의 신앙 단계는 아버지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65.9%로 미혼(34.1%)보다 높았으며, 남성의 기혼 비율(70.8%)이 여성보다 8%가량 높았다. 반면 미혼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66.5%로 남성보다 8% 높았다.

공동체 참여와 순예배 참석 빈도

응답자 중에서 성인 공동체 참여자는 69.6%, 청년 공동체 참여자는 25.8%로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4.6%였다. 순예배 참석 빈도를 보면 성인 공동체 62.2%, 청년 공동체 58.8%가 ‘반드시 참석한다’고 응답했다. 성인 공동체의 순예배 참석 인원은 7~9명이 가장 많았고, 청년 공동체는 3~4명이 주를 이뤄 규모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공동체는 순예배 참여 기간이 1~5년이 가장 많았고(41.9%), 성인 공동체는 5~10년(21.6%) 순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가 많았다.

젊은 부부 유입과 공동체 전환에 대한 응답

성인 공동체에 유입된 젊은 부부에 대해 1년 이내 유입 51.6%, 1~3년 28.6%로 나타나 최근 활발한 유입이 이루어졌다. 순에서 잘 수용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7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젊은 부부가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성인 공동체가 젊은 부부를 더 잘 수용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으로는 ‘소통 방

식의 개선’과 ‘융통성 있는 순예배 방식의 지향’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그림 3〉). 청년 공동체에서 성인 공동체로 전환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은 ‘분위기 적응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순예배를 집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세대 차이’, ‘과도한 사역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는 청년 성도들이 성인 공동체로 전환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반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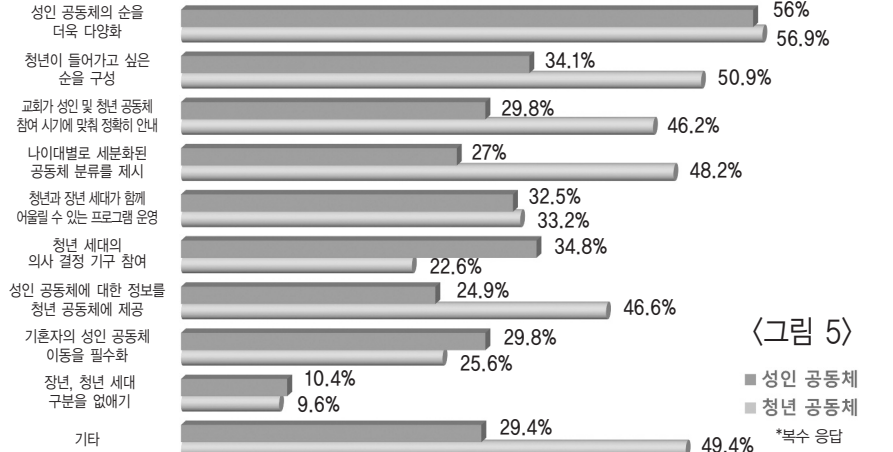
공동체 미참여 이유와 향후 교회 역할

공동체 미참여 이유로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어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시간을 내기 어려워’ 등이 응답되었다. 미참여 성도들도 공동체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며,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 성도들이 성인 공동체로 순조롭게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교회 역할로는 ‘성인 공동체 순의 다양화’, ‘청년이 들어가고 싶은 순 구성’, ‘성인 공동체에 대한 안내’ 등이 언급되었다. 이는 성인과 청년 공동체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청년 성도들이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청년, 성인 공동체 통합 위한 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이번 설문 조사는 청년 공동체와 성인 공동체 간에 문제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 방안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성인 공동체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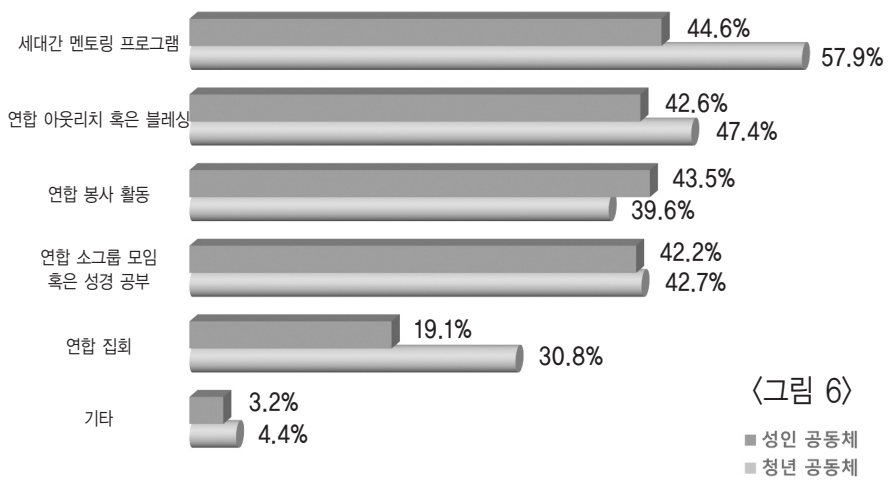
청년 공동체에서 성인 공동체로의 이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림 5〉

*복수 응답

청년 공동체와 성인 공동체간의 화합을 돕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



〈그림 6〉

*복수 응답

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단순히 새신자를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이 많은 청년들이 성인 공동체에 원활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이 성인 공동체로 전환하는 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림 5〉). 교회는 연령대별 특성과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성인 공동체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세분된 순 형성을 제안한다. 청년 개개인이 성인 공동체로 이동하는 대신, 특정 그룹의 청년 순 전체가 성인 공동체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 공동체 내 특별 순 구성을 제안한다. 나이 많은 미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순을 형성해 이들이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청년 공동체의 성인 공동체 전환 홍보 강화를 제안한다. 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를 통해 청년들의 성인 공동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아이 돌봄 지원 확대를 제안한다. 젊은 부부가 순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교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합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청년 공동체와 성인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그림 6〉).

온누리교회 청년층 유입과 세대 통합 위한 방향성 제시

이번 분석은 온누리교회 청년층과 성인 공동

체 간의 균형과 세대 간 유대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회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성도 구성과 세대별 요구를 이해하고, 청년층의 성인 공동체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회 내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소통 방식 개선과 순예배의 유연한 방식 지향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전 세대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성도 감소와 노령화 흐름을 단 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성도들의 공동체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DB 자료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업데이트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기존에 등록했으나 교회를 떠난 성도나 사망 성도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면서 90세 이상 고령 성도의 수가 실제보다 높게 집계된 점을 고려할 때, 연도별로 체계적인 데이터 업데이트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령 분포와 성도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를 중심으로 참여율이 높았고, 일부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았다. 자발적 참여 형식의 구구품 설문이기 때문에 모든 응답을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자료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4,123명의 대규모 참여는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창조질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도전

무더웠던 지난여름 파리 올림픽 개막식 일부 장면은 소위 성평등주의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전 세계에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드레그 퀸(여장남성)들 가운데 왕관을 쓴 여성이 있고, 전신에 파란 분장을 한 남성이 비스듬히 눕기도 하며 노래하는 모습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듯한 이미지를 제시해 기독교계의 경악을 일으켰다. 세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결혼 행진을 하고, 한 방에 들어가 포옹하며 문을 닫는 모습은 다자성애를 홍보하는 듯해 당황스러웠다. 이러한 문화적 풍조의 배후에는 ‘모든 권위에 저항하라’는 구호 아래 기독교와 그에 기반한 성윤리, 가족과 성도덕을 억압적인 것으로 보는 문화막시즘이 도사리고 있다.

가브리엘 쿠비가 저술한 <글로벌 성혁명>은 서구의 성정치의 부정적 결과를 적실히 보여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故 정일권 박사는 <문화막시즘의 황혼>에서 프로이트막시즘과 문화막시즘을 비판하면서 무력 혁명이 아닌 기독교적 문화-사회제도를 공격했던 문화막시즘의 사상적 폐해를 설명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혐오와 차별로 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은 사회문화적 혁명을 시도하는 문화막시즘이 교회, 기

독교적 윤리와 도덕, 생래적(生來的) 남녀 양성교 결혼에 대해 거세게 도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질의했던 자칭 기독교인 김성희 의원은 후보자를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단정했다.

올여름 대법원은 남성 2인 간의 결합에서 직장 없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이성 커플 중에서 직장 없는 배우자(주로 주부)에 준해 면제해 주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사실혼 관

“경건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계와 유사한 동거, 정조 및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 남성끼리든 여성끼리든 성인 2인 간의 결합에서 일방(무직)에 대해 무직인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건강보험법에서만큼은 사실혼과 같은 혜택을 동성 간 결합에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동성 결합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평등과 차별금지만을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 이유는 매우 충격적이다. 동성 결합에 대한 혜택 제공은 창조질서에 어긋난다. 만약 입양이나 난자 기증,

대리모, 시험관 아기 같은 보조생식술로 이어진다면,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 아래 자라날 자녀의 권익을 빼앗는 결과를 야기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기독교적 일부일처 혼인을 수용한 헌법상 혼인 가족 제도를 수호할 수 있는 이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주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는 2020년대부터 서구에서 진행되었던 성혁명 물결을 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 교회도 ‘1027 연합예배’에 참석을 독려하는 등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혼인의 중요성과 가족 윤리에 도전하는 ‘성해방’의 문화막시즘 요소는 이미 교육계에 들어와 있고, 많은 청소년이 ‘합의하면 어떤 성적 관계도 가능’하며, 혼인을 통해 비로소 성적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답답한 보수적 사고라는 이미지를 주는 교육에 노출되어 있다. 종교교 보전 및 기술 가정 교과서를 보며 창조와 혼인의 중요성의 관점,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경건한 성인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심각한 부분은 학부모가 기도하며 학교나 출판사에 이의제기할 필요도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해 성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경건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

수적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신 6:6-7)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한 차세대 교육에 힘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서 매 학기 개설되는 ‘온누리세계관학교’ (5주)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족 해체로 파편화된 인간관계에서 고독감으로 삶의 소망이 무너지는 이들(성혁명의 피해자들)을 열린 순예배와 교회로 초대하고, 기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터 잡은 죄사함,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지혜롭게 전하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호 6:1).



이상현
(강남대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도리스 브로햄을 추모하며

지난 8월, 7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한 도리스 브로햄이 9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도리스의 삶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든 헌신할 때 어떤 잠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도리스의 경우 그 장소가 ‘타이페이’였다.

도리스의 진지한 신앙과 음악에 대한 사랑,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 도리스가 열두 살 때 한 중국인 전도자가 그녀가 참석한 성경 캠프에서 중국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도리스가 주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들었다.

열일곱 살이 되던 해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탄bul 음악학교 장학금 제의를 거절했다. 5년 후인 1948년 그녀는 증기선을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그해는 마오쩌둥의 군대가 중국을 장악하던 시기였다. 내란의 혼란 속에서 도리스는 트럼펫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유물을 잃었다. 그 이후 3년 동안 그녀는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1951년 타이페이로 대피했다.

당시 타이페이는 99%가 불교도인 국가였다.

매주 불교식 장례를 지켜보던 도리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역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트럼펫으로 복음 성가를 연주했다. 훗날 도리스는 한 여승이 자신을 멈춰 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여승은 라디오를 듣고 도리스에게 다가와 조용히 성경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TV가 타이페이에 보급될 때 정부는 종교 프로그램은 제한된 특정 시간만 허용했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도리스가 크고 자금력 좋은 종교 단체를 제치고 이 프로그램을 방송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방송 합창단인 ‘헤브리 멜로디 싱어즈’는 타이페이 최초 기독교 음악 그룹이었다. 수년 동안 30개가 넘는 앨범을 녹음하고, 36개국을 투어를 했다. 헤브리 멜로디 싱어즈는 중국어로 작곡한 최초의 예배곡을 포함해 많은 자작곡을 공연하고 있다.

1963년 공연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타이페이에는 텔레비전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도리스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불교 사

원 TV 주위에 모여들곤 했다. 그녀는 나중에 “불교 사원에서 얼마나 자주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타이페이에는 영어 교육이 거의 없었다. 장제스 총통은 도리스에게 내각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1962년 교육부는 국영 라디오 방송국에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했다. 방송국이 도리스에게 의뢰했고, 그녀는 ‘스튜디오 교실’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프로그램 대본을 요청하기 시작하자 도리스는 라디오에서 가르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잡지를 만들었다.

결국 어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급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두 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합해 종합적인 영어 학습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실제 그녀의 사역인 ‘해외 라디오와 텔레비전(ORTV)’으로 타이페이 전역에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 시청한다. 그 과정에서 복음을 듣는다.

마침내 전 대만 총통이 도리스의 중국어 전기 서문에 쓴 것처럼, 그녀는 2천만 명에게 영

어를 가르쳤다. 타이페이에서 영어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ORTV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이었던 도리스와 셀카를 찍기 위해 그녀를 자주 멈춰 세우곤 했다. 그녀는 정부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2002년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대만 최고의 상인 ‘보랏빛 그랑프르 동’ 훈장을 받았고, 2023년에는 타이페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ORTV의 영어 프로그램은 전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도리스가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시아에서 70년 넘게 사역하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해왔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도리스 브로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논평과 칼럼)

원문: breakpoint(20241009)

찬란한 미래 만드는 차세대 교사들!

11월 17일까지 '2025 차세대 교사 모집'



국어사전에서 '차세대(次世代)'를 '지금 세대가 지난 다음세대'라고 정의한다. '차세대가 미래를 이끌어 가는 존재'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바로 차세대들이다. 그 찬란한 미래를 위해 시간과 물질, 정성을 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차세대 교사들'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에 교사 2,922명이 있다. 차세대사업본부에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동역할 '다음세대 응원단'을 찾는다. 11월 9일(토)부터 17일(일)까지 '2025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약 420명(사랑부 30명 포함)이 더 필요하다. 이를 독려하고자 차세대 교사 이종우 장로(서빙고 파워웨이브)와 김도영 장로(양재 파워웨이브)가 성도들에게 초청의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이들!

저는 1982년 어느 가을날, CCC(한국대학생 선교회) 친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차세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매주 청년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차세대 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채 1년도 안 된 청년이 한편으로는 무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정말 커서 담대하게 중고등부 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들(특히 다음세대 아이들)을 존귀한 자들로

여기며,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 여정 대부분을 차세대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소망과 꿈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고, 구원을 즐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요삼 1:4).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차세대에 소속된 기간에 저희 부부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부일 때는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일 때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공감대가 있어서 사춘기마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래 아이들을 잘 이해하며 양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 모두 가정을 이루었는데, 머리를 포함한 가족채팅방에서 매일 큐티와 적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저희 부부와 함께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친구들도 한 명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저희 부부의 기쁨인데 차세대 교사를 꾸준히 해온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일이 종종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훨씬 큼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모른 채 공부와 친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장로가 된 저는 차세대 유년부와 유아부, 파워웨이브를 차례로 몇 년씩 섬기는데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차세대는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들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꿈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차세대가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세대 응원단'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이종우 장로
(서빙고 파워웨이브)

교사, 그 값진 이름!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네 하나님 그리고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속한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 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창 18:19).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부르십니다.

1999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성인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故 하용조 목사님이 강남에 사는 성도들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서빙고온누리교회 예배

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제 딸이 서빙고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양재온누리교회에 꿈이더라는 땅 부서까지만 있었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나름의 이유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겨울, 교회에서 2000년부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재온누리교회로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제 딸이 교회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양육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네 딸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겠지만, 네가 가서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지 않겠

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 양재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를 담당할 전도사님께 전화를 걸어 교사로 섬길 수 있는지 여쭙봤습니다. 전도사님이 2000년 3월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차세대 교사 생활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차세대 교사, 코치, 그리고 교육위원회 장로로 차세대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 열정 있는 대학생과 청년들,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많이 지원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한 분은 당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자였다가 신앙을 가져서 신앙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해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교사로 섬기는 선생

님들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 교사로 섬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많은 장로님도 차세대를 섬기셨습니다.

차세대 교사와 코치로 섬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사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 공동체는 젊은 교사와 중장년 교사가 조화롭게 구성될 때 하나님이 맡겨 주신 다음세대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세대를 위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 값진 일에 동역해 주십시오.



김도영 장로
(양재 파워웨이브)

“내가 바로 사울이었구나...”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내가 바로 사울이었구나”.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과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아니스타’가 관객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다.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도 죄를 짓는 사울과 연인을 죽인 사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와 똑같은 길을 걷는 아니스타에게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를 ‘이해’시키는 작품이 그리 흔치 않다. 이것이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가 특별한 이유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사진은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커튼콜. 왼쪽부터 배우 오종혁, 선예, 김은채.

로마 황제의 노예로 끌려가는 이방인 ‘아니스타’를 ‘스테반’이 구출하고,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스테반과 아니스타는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다. 그런데 스테반이 ‘사울(바울의 변화 전 이름)’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고 만다. 사랑하는 스테반의 죽음을 목격한 아니스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뿐인데 그 최후가 죽음이라는 사실에 깊은 증오와 분노에 휩싸인다.

“대체 그가 잘못된 게 뭔가요. 예수를 따랐을 뿐인데 하늘이여 말해주세요... 당신 정말 살아있다면 왜 그의 죽음 그냥 보고 있나요?”

사울과 아니스타, 바울과 아니스타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한다. 그런데 형언할 수 없이 밝은 빛이 갑자기 사울을 향한다. 그 순간 사울이 시력을 잃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죄를 부정하다가 이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화심한 바울은 아니스타를 찾아가 용서를 빈다. 스테반의 어머니 ‘크리스티나’는 아니스타에게 그를 용서하자고 하지만, 아니스타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바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집을 나가버린다.

오랜 세월 바울과 그의 무리를 증오하던 아니스타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스테반을 떠올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과 똑같은 사실을 발견한다.

“분노의 그 끝 나를 향해 증오의 끝 내 눈을

가려 어둠에서 시작한 이길 내가 바로 사울이었구나.”

막이 내리고, 커튼콜이 시작됐다. 배우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거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관객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배우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저마다 소감을 나누며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에게서 묘한 흥분감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권시연 학생(수원온누리교회)과 윤지후 학생(광림남교회)은 사울이 화심하고, 아니스타가 화개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성경책에서 읽었던 사울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더 와닿았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가 〈바울과 나〉를 보면 기독교를 더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꼭 같이 보고 싶어요.”

임성범 성도(신수동교회)는 기독교 창작 뮤

지컬 〈바울과 나〉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데,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추천한다고 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잘 표현했고, 관객들에게 사랑과 용서, 화해와 회개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흥을 위해 2030세대가 이 뮤지컬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는 관객들이 ‘바울’과 ‘아니스타’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바울. 절망과 증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선택하는 아니스타가 곧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는 12월 7일까지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막 오른다. 평일 오후 7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주말 오후 2시와 6시에 공연한다. 티켓은 R석 7만 원, VIP석 9만 원으로 인터파크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잔여석에 한해 40% 할인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QR로 들어가 인증번호(Paul001)를 입력 후 예매하면 된다. 이외 인터파크티켓 온누리할인 이용시 주보를 지참하면된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공연 감상문 대회도 개최한다. 12월 10일(화)까지 A4 한 장 분량의 감상문을 글자 크기 10pt로 작성해서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문의 : 010-9256-7891

010-9332-9256

010-3313-3778



목회칼럼



고길현 목사
(영어예배부)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 ‘스테반’의 순교와 같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을 이방 여인 ‘아니스타’라는 허구의 인물로 중심으로 풀어냈다. 고난과 증오 속에서 하나님의 뜻, 곧 용서와 화해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전하는 스테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지켜낸다. 스테반의 마지막 간구는 용서였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더욱 퍼져나간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에는 스테반의 순교를 지켜보던 사람 중에 ‘사울’, 성난 군중,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 스테반의 연인 아니스타가 있었다. 그녀는 스테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며 스테반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가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자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는 아니스타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이가 없었다. 하나님에게 묻고, 예수님에게 따져도 그녀가 듣고 싶은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아니스타의 스테반을 잃은 상실감이 사울을 향한 증오로 변한다. 그래서 그녀는 스테반의 마지막 당부였던 용서 대신 부당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한 복수를 선택한다.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가 아닌가.

아니스타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다. 끝까지 악인으로 남아있어야 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회심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목숨을 바쳐 전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인가? 죽은 스테반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아니스타는 증오의 관성에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아니스타는 자신을 삼킬 듯 불어닥치는 증오와 미움의 광풍과 고통의 파도가 치는 이유를 계속해서 묻는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 앞에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나뿐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것이다. 설령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도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묻는다. 그러고는 어디서든 원하는 대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

아니스타가 일련의 사건으로 바울과 만나게 된다. 마침내 자신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끊임없이 증오와 복수 가운데

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고, 과거에 주저앉아있던 아니스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녀가 그토록 물었던 비바람의 이유, 파도의 이유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뜻을 들려준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행 26:16)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바람과 삼킬 듯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아니스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를 관람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들려오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비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바람을 견딜 힘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믿음이 주어진 것이라 믿는다. 아니스타처럼 과거에 갇혀 오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시작된 용서와 화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바란다.

용서와 화해의 거대한 물줄기

맛있는 말씀 해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

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행복 수준과 높은 불안,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물질적 성공을 인생의 주요 목표로 삼을 때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우리가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물질적 성공은 겉으로 빛나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한 젊은이가 물질적 성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도덕적 기준을 무시한 사례로, 그 결과 그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기사는 돈과 풍요로움이 곧 성공의 척도가 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은 아

닌지 돌아보게 한다. 물질적 풍요를 향한 욕망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은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삶의 목적을 위해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바랐다.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다.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바라는 물질적 축복과 안정을 우선시하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고백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여호와를 섬기며,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음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은 풍요로움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인애가 사라졌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

그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제사 드릴 때 역겨워하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예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고백은 진실한가? 아니면 물질과 편리함을 위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때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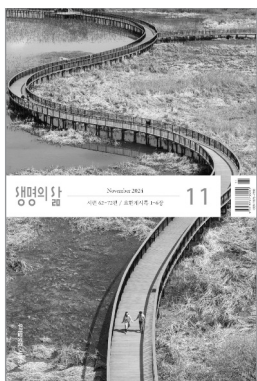


김성욱 목사
(강동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고난의 기도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11월 11일~11월 17일
〈시편〉 69:13~72:20



묵상포인트:
69~72편은 〈시편〉 제2권을 마무리하는 세 편의 ‘탄식 시’와 한 편의 ‘제왕 시’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곧

고한 자들과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이유다.

고난 속에서 불평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모습, 내면의 회복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모습,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을 묵상하자.

69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다.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종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비방과 수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낸다. 그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이 고통당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가난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는 점차 희망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값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고백한다. 개인의 억울함과 고통에서 시작된 기도가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는 축복으로 마무리된다.

70편은 〈시편〉 기자의 목숨을 노리며 불행을 기원하는 원수들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시다. 위기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도우시고 건지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71편은 악한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노인의 기도다. 노년에 이르러 쇠약해진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게 위협을 받는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온 그는 자신이 연약해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의 고백에 언급되는 ‘숨을 바위’, ‘반석’, ‘요새’, ‘건고한 피난처’ 등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상징한다. 그가 품은 사명은 하나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분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자신을 해하려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72편은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염원하는 시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의’다.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통치하는 왕은 백성

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다. 의로운 왕은 궁핍한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의로운 왕은 모든 백성을 품고 같이 왕성하게 자라나게 하기에 백성은 왕을 축복하며 기도한다. 의로운 왕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다. 〈시편〉 기자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2권(42~72편)을 마무리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을 받을 때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심경을 아뢰고 새 힘을 얻자. ▶고통 속에서 탄식하던 〈시편〉 기자는 기도 가운데서 희망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낙심에 마음을 내어 주지 말고 기도와 찬양으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자. ▶내가 후대를 위해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 물리적 부요가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행하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처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약자를 귀하게 여기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엄마와 친정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30년 이상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친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의 엄마 선순복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엄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2년째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수술해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엄마 선순복 성도를 불쌍히 여겨서 의식이 속히 깨어나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뇌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섬망 증상이나 우울증, 치매 같은 후유증 없이 말끔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엄마의 영혼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던 친정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 선순복 성도를 통해 친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주시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재민 성도(마리아무릎기도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

“직장에 다닌 지 꽤 됐는데도 어려운 형편에 십일조를 내는 것이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4장을 보면, 십일조에 대한 규례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신 14:22~23).

성경은 십일조를 내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십일조를 구별해서 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구별하셨기에,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십일조를 드린 이가 아브

라함이다. 그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리고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찾아 그에게 십일조를 바친다(창 14:17~20). 이는 하나님이 그돌라오멜과 싸우셨으며 승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십일조의 참된 의미는 내 삶의 주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

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는가’, 둘째, ‘나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가’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점검한다면 내 형편이 아닌 순종의 삶에 집중하게 된다. 십일조를 내는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십일조를 내는 게 힘이 드는 이유는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는 자기 부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 부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과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전진 목사
(CHPLUS공동체)

“우리가 순종과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

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헌금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다. 부자들이 성전으로 나아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다. 잠시 뒤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 렘돈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녀가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12:43~44).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다르다. 세상은 부자들이 넣은 큰돈을 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마음의 전부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분에게 드리는 돈의 가치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 생활은 부부 중심!

부부에게 재미로 물어보는 오래된 밸런스 게임이 있다. ‘만약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주로 엄마와 아내가 밸런스 게임의 대상으로 주어진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든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전제 조건을 확인한다. ‘엄마와 아내 두 사람 다 구할 수는 없는가?’, ‘두 사람 모두 수영을 잘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만 수영할 수 있느냐?’, ‘왜? 꼭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나중에 가서 남편들이 “나도 수영을 하지 못한다”, “함께 떠밀려가겠다” 등의 억지스러운 대답을 하곤 한다. 물론 빠르게 누구를 선택하든 선택 뒤에 주어지는 지독한 질책과 재질문이 남편들을 기다린다. 그런데 부부 모임에서는 고민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꼭 한 명을 구해야 한다면 아내를 구하겠다고 순발력 있게 대답하기도 한다. 상황에 맞는 대답을 찾아야 하므로 남편들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라면 몹시 섭섭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엄마와 아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남편들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식의 곤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현실에서 남편이 아내인 자신보다 엄마를 더 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효자와 결혼하면 힘들다”

이다.

효심 깊은 아들과 만나면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다고 한다. 어느 틈에 시어머니와 자신이 남편을 중간에 두고 줄다리기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한참 줄다리를 하는 자신을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물론 효심 깊은 남편들이 항변할 수 있다. “어머니께 드리는 관심과 사랑은 효도의 차원이다. 장모님께도 잘하지 않는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인데 왜 섭섭해하는가?”라고 말이다. 엄마와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왜 시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내는 효심 깊은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자신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자신에게 줘야 할 관심과 사랑을 시댁에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서운할 수 있다. ‘물에 빠진 엄마와 아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알쏭한 질문에 남편이 말하지는 않지만, 평상시 행동을 통해서 늘 엄마를 선택한다고 아내가 느낄 수 있다.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중심에서 벗어나 변두리로 밀려간다고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 남편이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라고 말을 하더라도 공허한 메

아리처럼 느껴진다. 진정성이 없는 빈말이라고 느낀다.

결혼 생활에서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결혼의 핵심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다. 부부가 중심이 된 결혼이 건강한 결혼이다. 부부 외에 다른 가족 간의 관계가 부각된다면 건강한 부부의 결혼 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가족 질서가 흔들린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전 부모에게 했던 다양한 섬김과 돌봄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부모에게 드렸던 용돈과 선물도 결혼 전과 달라질 필요가 있다. 필히 배우자와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혼자서 결정했던 독신일 때와는 달리려야 한다. 배우자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다. 아내들도 친정엄마에게 드리고 싶은 용돈이나 선물이 있다면 사전에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 먼저 상의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배우자에게 둔다는 의미가 된다.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오해와 섭섭함이 쌓이게 된다. 상의하고 허락을 구하기 싫은 사람은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단 불편한 상황을 거짓으로 무마하려고 시도한다. 그

런데 부부 사이의 거짓말은 언젠가 대부분 들 통난다.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 깊은 대화를 통한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고,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선을 찾는 부부가 우선순위를 바로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결혼 전에 했던 것보다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다. 더 잘 섬기고 싶은 효심이 발동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결혼 생활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현실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타협으로 인한 결정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함께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배우자보다 부모와 깊은 밀착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부부 중심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효자, 효녀가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결혼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부부는 밸런스 게임 상황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해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Acts29 비전빌리지, 체력단련실 후원 요청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에서 사용할 운동 기구 구매를 위한 현금 후원을 받는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위해 바쁘게 헌신하면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다. 체력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체력 단련 및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돕고자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을 개설했다. 선교사들의 신체 건강을 도모하고, 선교지에서 운동을 가르치며 선교하는 방법

을 훈련하는 목적이다.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 시설과 운영 계획은 마련했는데, 아직 운동 기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줄 운동 기구 구매를 위한 현금 후원이 꼭 필요하다.

문의: 031-331-8182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13-11005

(예금주: 온누리교회 액빌훈련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몸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도구!



정주호 대표
(스타트레인)

우리는 몸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고, 몸이 있어야 영혼을 담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몸을 단순한 물질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작품으로 여기며 영적이고 건강한 몸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선교사에게 영혼만큼이나 중요한 게 몸이다. 선교는 믿음과 영성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영성을 담고 있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이 없다면 영성을 움직일 동력을 잃게 된다. 선교지에서 사명을 멈추고 귀국하는 선교사들 대부분 건강 문제가 있다. 선교사는 건강해야 한다. 선교사가 건강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몸이 선교 도구’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에게 건강은 선교 사명을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

체력단련실의 선한 기능



안철민 교수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

Acts29 비전빌리지에 조성된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은 단순히 체력을 증진하는 곳이 아니다. 선교사들의 훈련 시작 시점부터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의료진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이에 따른 운동 관련 트레이너와 협력해 맞춤형 운동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훈련이 끝난 후부터 파송 전까지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선교지에서도 균형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훈련받은 내용을 선교지에서 선교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다.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은 두 가지 선한 기능이 있다. 하나는 선교사들이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한 영육으로 주어진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선교사들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작은 정성들을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풍당’ 글로벌 버전 출시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풍당’, 세계로 뻗어간다

기독교 OTT ‘풍당’이 지난 5일(화) ‘글로벌 버전’을 출시했다. ‘풍당’ 글로벌 버전은 기존과 크게 다섯 면에서 차별화했다. 첫째, 서비스 언어를 영어로 제공한다. 둘째, 한국 채널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 AI 번역을 통해 자막이 제공된다. 셋째, 신규 콘텐츠의 메타언어는 영어로 선택적 번역할 수 있다. 신규 콘텐츠를 편성 및 운영할 때 선택적으로 AI를

통한 번역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CGN 해외 지사 3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프랑스)의 정주행 채널이 개설된다. 다섯째, 제4차로 잔대회 중계 실황을 다국어로 업로드한다(7개 언어).

그밖에 CGN의 대표적인 다국어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다국어 버전, 선교 다국어 <바울로부터>는 영어로 제공된다. / 김현준 기자

제이홈&선한울타리 ‘찾아가는 세미나’

11월 17일 인천온누리교회 기쁨홀

제이홈&선한울타리에서 오는 11월 1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인천온누리교회 2층 기쁨홀에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누리교회 고아사역(자립지원, 가정결연, 가정위탁, 입

양)에 대해 설명한다. 오창화 팀장과 고봉익 팀장이 강의한다. 고아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함께 온 자녀의 돌봄을 제공한다.

/ 김현준 기자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12월 1일까지 제출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1일(일)까지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나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고민해 보고, 그 내용을 독후감으로 써서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만 참가할 수 있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12월 22일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110



지난 11월 6일 명지대학교 ‘명진홀’ 리모델링 봉헌예배를 드렸다.

명지대학교 ‘명진홀’ 리모델링 봉헌예배

온누리교회 6억 원 상당 후원

온누리교회가 다음세대를 세우고 교육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명지대학교 ‘명진홀’ 리모델링 공사에 6억 원을 후원했다.

지난 11월 6일(수) 명지대학교 ‘명진홀’ 리모델링 봉헌예배를 드렸다. 찬송, 기도, 특송, 말씀, 설립 정신 낭독,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감사 인사, 이재훈 목사 격려사, 축도, 제막

식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명지대학교 ‘명진홀’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231인치 LED 모니터, 음향, 조명, 영상 장비 및 바닥, 벽체, 천장 마감재 변경, 냉난방기, 환기설, LED 등기구 설치 등을 했다. 명지대학교 ‘명진홀’은 강의, 각종 행사, 명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예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언어로 복음 전하는 ‘전도 패러다임’

복음과도시 콜로키움 ‘맞춤전도’ 오픈 세미나

복음과도시 콜로키움 ‘맞춤전도’ 오픈 세미나가 지난 11월 5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인호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가 ‘맞춤전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크룩스의 특순도 있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맞춤전도란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복음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발견해 복음을 생활언어로 전하는 전도 패러다임”이라 말

하면서 성경적, 신학적, 선교적 근거로 ‘맞춤전도’를 설명했다.

권오향 목사(남양주온누리)는 “틀에 박힌 전도 형식에서 벗어나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고 맞춰서 전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유익 강도사(성복중앙교회)는 “복음과 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생활필수품 1만여 개를 ‘온기창고’에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12명, ‘서울역쪽방상담소’ 방문

차세대사역본부 ‘꿈이자는땅’과 ‘과워웨이브’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 12명이 지난달 25일(금)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했다.

이날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필수품

1만여 개를 ‘온기창고’(쪽방촌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져갈 수 있는 공간)에 진열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차세대 교사 간증



/ 김기덕 교사(양재 유년2부)

그 감동이 찾아온다면...

나는 네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와 주일학교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와 가정의 함께 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문득 ‘교회가 우리 가정과 아이들에게 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들었던 2018년 어느 가을날, ‘다음세대 응원단’ 모집 광고를 봤다. 그리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교사가 된 이후 유년부를 섬기고 있다. 주일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에너지가 팔팔 끓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 앞에 ‘교사’라는 이름으로 서지만, 사실은 내가 더 배우고 받는 게 많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선생님을 향한 아이들의 무한한 애정이 계속해서 교사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 아이들과 여름 캠프를 갔던 날이다. 매년 캠프를 함께 하는데 그때마다 새롭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다. 마냥 어리고, 장난꾸러기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나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선생

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아직도 있다. 주일에 교회에 가면 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내 신앙이 무탈하게 성장했던 것 같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힘든 시간이 없지는 않다. 체력적으로 부치는 날도 수도 록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사가 되고 싶다. 교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는다. 가르치기보다 그저 사랑을 잘 흘러보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만난 아이들이 부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잘 키워나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교사가 되었다. 그 감동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갈지 모른다. 그 감동이 찾아온다면 주저 없이 교사의 자리로 찾아오기를 바란다. 우리의 미래인 차세대에게 함께 사랑을 흘러보내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할 멋진 선생님들을 기다린다.

■ 양재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이고은 성도(분당B공동체)

선교적 삶에 대한 소망

신랑의 권유로 함께 와이미션에 참여했다. ‘20년 가까이 온누리교회 성도로 섬겼으니 선교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성경 속 선교와 우리나라와 세계 속 선교 그리고 매주 다른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생생한 선교 이야기를 듣는 게 그저 재미있었다.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는 강한 이끌림보다는 선교사님과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감사한 부담을 갖게 됐다. 와이미션은 나라 한 곳이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해 준 시간이었다.

만약 누군가 와이미션을 하는 7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본다면 나는 두 가지를 꼽을 것이다.

첫째,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였던 기도 시간이다. 매주 나라 한 곳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루 하루 나 살기 바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둘째, 와이미션 6주 차에 들었던 강의다. 그 강의는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 무슬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주제로 이어진 강의였다. 특히 언어에 관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만 아는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 구하고,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날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

이번 와이미션을 수료하면서 당장 내 주변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품는 마음을 배웠다. 하나님 안에서 공감과 용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의 기회를 주실 때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다. 와이미션을 듣는 7주 동안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적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스태프들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이근혜 성도(동작공동체)

멋진 나의 하나님!

지난해 가을, 아는 권사님을 통해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알게 되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좋다면서 그 과정을 듣고 나면 가정이 깨어나고, 나의 정체성과 참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그러다 2학기 아이스쿨 양육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쭙보며 기도하는데, “연약한 엄마, 연약한 아내의 위치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바로 두란노어머니학교 수강 신청을 했다. 왜 하나님이 두란노어머니학교로 나를 이끄셨는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강하면서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가정을 통해 길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원리가 없었기에 가정이 깨지고, 가족을 미워했던 것을 알게 됐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헌신과 사랑으로 죄인을 품으셨다. 예수님처럼 남편과 아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야 했는데,

누군가 헌신하면 더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다. 그 사람의 헌신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됐고, 소통이 안 되면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하고 멋지게 지으셨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러운 죄성으로 인해 항상 넘어지고, 사탄이 좋아할 것들만 하며 살았다. 부부의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처참히 부서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강하며 깨달았다. 회개가 날마다 나왔다. 너무 죄송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의 좋은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그 강의를 통해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치유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멋진 나의 하나님을 두 손 높이 경배한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 이근혜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멋지게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 ‘맘앰맘스’에서 온 편지



/ 엄혜정 자매(맘앰맘스 멘티)

멘토님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내가 처음 맘앰맘스를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유치원생이던 제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즐거웠던 기억 대부분 맘앰맘스 활동을 하며 얻은 것 같습니다. 원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입고 웅크려 있던 저를 일어나게 해 주신 맘앰맘스 멘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멘토님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방법을 생각하다가 올해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9월부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도전하게 된 것은 맘앰맘스 멘토님들의 사랑과 응원 덕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항상 지지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도움 방법을 찾고자 애써주시는 멘토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정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멘토님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자 합니다.

사실 혼자 두 사람 몫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아주 힘들고, 울음을 삼키며 버텨야 하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맘앰맘스를 통해 많은 분의 기도와 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실 멘토님들이 계시기에 또 힘을 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우리 멘토님들처럼 저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지난 6년 동안 응원해주시고 챙겨주신 엄마 같은 맘앰맘스 멘토님들과 제 멘토님이신 이승미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멘토님들의 사랑과 응원을 기억하며 제 아이들과 또 다른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의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칼럼

사모드라게의 바람

성주명 장로
(여의도공동체)

지난여름, 여의도 공동체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지역 땅 밟기를 다녀왔다. 더불어 그리스의 카타리나 로 마니부족(소위 집시촌)이 모여 사는 곳을 방문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사모드라게라는 섬이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후(행 16:9) 마게도나로 가던 길에 들린 섬이다. 그 섬에 들러 받았던 은혜를 시로 옮겨 나누고 싶다.

사모드라게의 바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바다. 에게해의 맞바람이 상당히 드세다.

돛을 올렸으나 좀처럼 전진(前進)이 되지 않는다.

인생이 그러하듯 항해가 만만치 않다.

고충(苦衷), 고난, 핍박, 위험, 고통이 산재(散在)해 있다.

이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 위로부터의 도움말이다.

나는 세상의 법과 조상의 전통으로 살아보려 애썼으나, 일순간에 부러져 버렸다.

교만하게 의의(意義)를 세우며 주변을 핍박까지 하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나를 찾

아오셨다.

그 이후,
끝이 안 보이는 일중독과 인정중독,
그리고 자기의의를 세우는 사람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복음(福音)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리이신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참으로 존귀(尊貴)할진데,
4리터의 피를 나를 위해 쏟으셨다.

천하의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和睦祭物)이 되셨다.

더 나아가 천부(天父)께서는 천국(天國)의 유업을 이어받는 양자(養子) 삼아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제, 삶의 목표는
뻗속 깊이 각인(刻印)되어 있는 이기주의
자에서,

주변을 넉넉히 품는 자로,

그리고,
자기연민에 빠진 자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몸과 온 힘으로 사랑
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기에
남은 경주를 잘 달려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면류관이 있는 천국(天國)에 이르기까지!

권사칼럼

남편의 기(氣) 살릴 사람은 아내뿐!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남편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차마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침이면 출근하는 척하는 남편들도 있고,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출근하는 차량들을 멍하니 내려다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들도 있다.

아직 학교도 못 마친 아이들, 결혼해서 독립 못 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지기도 한다. 그 순간 남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시기에 은퇴해야 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평생일대의 위기이며, 좌절이다.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인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삶인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것이다. 이 두려움으로 남편들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남편을 격려하고, 기(氣)를 살려줄 사람은 아내뿐이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버지도 언젠가는 현역에서 물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귀담해줘야 한다. 온 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내이자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이다. 은퇴를 앞둔 가장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가 소중하다. 가정이 안전기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체성 혼돈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편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가 아내다. 사실 은퇴할 때쯤 나이의 남편들은 친구가 별로 없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일에 파묻혀 살아온 남편들은 마음

을 나눌 친구가 거의 없다. 지독한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가 더욱 소중해진다.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자존심과 미안함, 그리고 남자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문화에 묶여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들이 다가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때 아내들은 ‘남편은 과연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한 편이다. 우스갯소리로 부부를 ‘평생 원수’라고 한다지만, 부부는 진정한 아군이다. 아군인 남편이 기가 죽으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내에게 미치고, 또 온 가족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요즘 남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아군인 남편의 기를 살릴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는지, 충족되지 못한 공허함으로 허전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남편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더불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한다. 보통 남성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다. 어떤 심리학자는 “남성들은 한 여성에게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몸부림친다”고 주장한다. 아내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남편의 실수와 약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편을 화나게 만들거나 주눅 들게 만드는 일이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신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주 인식시키기를 바란다. 작은 일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때마다 “역시 당신이 있어야 해”라고 말해줘야 한다. 아내의 인생에서 남편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장례사역)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회에서도 장례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는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시간 순서대로 탄생해도 죽을 때는 순서대로 죽지 않는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노인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보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삶을 더 의미 있고, 농밀하게 살아가

는 모습도 본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지혜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묵상해야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현재 남아있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려고 할 때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다. 죽음은 실로 두려운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두려움을 느낀다. 성경은 사람이 두 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 다시 말해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죽음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이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가 무엇일까? 죽는 순간까지 삶을 100% 누리며 두려움 없이 죽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 명예? 지식? 건강? 결코 아니다. 그것은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 대신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 그가 죽음을 어떻게 생

각했는지 보여준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이 땅에서 사는 것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천국에서 사는 것의 시작은 죽음이다. 무엇이 더 값진 것인가? 출생보다 영생의 시작이 중요하다. 죽음의 고통보다 천국의 영광이 위대하다. 죽음이 영생을 시작하는 통과리레라면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믿음으로 직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시아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믿음홀
담당: 권영찬 전도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화평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
소년문화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제출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르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TP44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2월 30일~2025년 1월 24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접수: www.visionvillage.org
마감: 11월 29일까지
문의: 031-331-818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침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
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마노아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11월 17일 평택 인도네시아 예배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생명의삶> 편집 디자이너 1명,
Living Life, Sena(영문) 편집 디자이너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즈, 아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
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들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스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
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기독교 OTT 풍당 글로벌 서비스 시작!

- ✓ 한국 채널 실시간 AI 영어 번역 자막
- ✓ CGN 해외지사 정주행 채널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풍당 앱 다운로드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GN,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로잔·CGN이 함께하는 말씀달력
'이천이십오년의 기도'가 출시되었습니다.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796-2243

